

보건계열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유은미 · 이은지¹ · 서혜연¹ · 강민경² · 최유리³

신구대학교 치위생과 ·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 ²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 ³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Awareness and needs for English learning in allied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Eun-Mi Yoo · Eun-Ji Lee¹ · Hye-Yeon Seo¹ · Min-Kyung Kang² · Yu-Ri Choi³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gu University · ¹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u-Ri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edical Campus, Kyungdong University, # 815, Gyeonhwon-ro, Munmak, Wonju, 24695, Korea, Tel: +82-33-738-1313, Fax: +82-33-738-1349, E-mail: yrchoi32@kduniv.ac.kr

Received: 30 December 2015; Revised: 8 April 2016; Accepted: 12 April 2016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needs of English learning in allied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600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urpose of English learning, attitude and motivation. Data were analyzed by SPSS 19.0 program.

Results: Most of the students took English classes(96%) and the English class was mainly done by instruction-centered learning (43.6%). Many students felt the needs of English and they thought English wa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getting a job(70.7%). Nonetheless most of the students lacked in confidence and interest in English learning due to the surrounding pressure(51.2%). Too much surrounding pressure can cause students lose their zest in English learning.

Conclusions: It is need to seek for a curriculum consisting of practical purposes to meet the needs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about English learning.

Key Words: English learning, allied health science college, awareness, learning method

색인: 보건계열, 영어학습, 인식, 학습방법

서론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적 요구도 증가, 의료시장 개방 등 글로벌화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다[1]. 또한 의료관광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각 대학병원에서 국제진료소 등이 등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어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2],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과 문화권

으로 통합되어 국제 언어인 영어가 대부분 주요 언어로서 의사소통되고 있다[3]. 현재 한국은 영어 교육에 막대한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고,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비일비재하다[4]. 이에 의료계에서도 영어활용이 가능한 인재가 요구 되고 있으며 취업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기본이 되고 있다[5].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영어학습은 필수적인 과제로 보이며 대학생들도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결국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이 사실상 강요되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공무원시험, 취업, 일반 기업체 대학원등 모든 진로에서 영어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6]. 이에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교양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7]. 현재 4년제 대학에서는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에 대한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은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전공교과목과 접목된 영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다[8].

보건 계열 관련학과에서는 좀 더 좋은 취업자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어 능력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자신감, 언어 불안 등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 환경에 따라 변동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전공영어 강의 대한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여 교실 현장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전공영어 강의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9].

국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은 물론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채용 시 구성원에게 원활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진의료체계의 건강 전문가들과 국제교류에도 필수적이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의료진의 외국어 능력'으로 나타났다[2],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육성해야하는 능력으로도 글로벌역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의 언어 능력이 취업과 연관이 있다[10]. 지금까지 일반계열 대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비교 선행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6,7,9], 보건계열 학생들에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많은 외국인 환자의 유입과 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변화 및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보건계열의 영어교육에 대한 영어 학습 동기, 자신감 및 흥미도, 학습 환경요인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를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건계열 영어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대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하였으며,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2014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7명을 제외한 600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크게 4 분류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로는 영어 학습 동기, 영어 학습 흥미, 교육자의 성향(태도, 학습 분위기)으로 분류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교육 방법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육자의 교수법,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 그리고 학습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영어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설문지 응답의 변수는 영어학습에 관한 설문은 각각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으로 묶음 처리 하였다. 그리고 보건계열 학과에 따른 영어학습에 관한 비교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여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Cronbach's alpha값은 0.90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9.0K program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양측검정 하였다.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어학습에 대한 개인적인태도는 frequency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보건계열 학과에 따른 영어학습에 관한 비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post-hoc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 검정 수준은 0.05, 0.001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에 응답한 보건계열학생은 재학생 1학년(45.3%)과 2학년(54.7%)으로 전체 600명이었다. 남녀 비율은 여자(66.2%)가 남자(33.8%)보다 더 많았고, 대부분 만 19세 이하(65.0%)이었다. 보건계열 가운데 치위생(학)과가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방사선(학)과(19.3%), 물리치료(학)과(19.0%), 치기공(학)과(14.8%), 간호학과(13.3%), 보건행정(학)과(12.5%)순이었다<Table 1>.

2.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에 대한 응답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응답자 중 대부분은 영어 교과목 수업을 학교에서 수강한 적이 있었으며(96.0%),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은 취업(43.6%), 졸업인증(28.9%)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어를 수업하는 방식은 이론수업(70.7%)이 기본이었으며, 토론수업(24.2%)과 실기수업(21.2%), 1:1 수업(12.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203(33.8)
	Female	397(66.2)
Age	≤ 19 years old	390(65.0)
	20 years old students	66(11.0)
	21 years old students	63(10.5)
	22 years old students	44(7.3)
	Over 23 years old students	37(6.2)
Department	Dental hygiene	126(21.1)
	Nursing	80(13.3)
	Physical therapy	114(19.0)
	Dental technology	89(14.8)
	Radiological technology	116(19.3)
	Health administration	75(12.5)
Grade	First-year students	272(45.3)
	Second-year students	328(54.7)
	Total	600(100.0)

Frequency analysis

Table 2. Personal awareness toward English learning

Characteristics	Division	N(%)
Have you taken English classes at the college that you are currently attending?		
Yes		576(96.0)
No		24(4.0)
What is the purpose of learning English?		
	Accreditation of graduation	173(28.9)
	College transfer	16(2.7)
	Admission to Graduate school	9(1.5)
	Employment	261(43.6)
	Study-abroad	24(4.0)
	Etc	117(19.3)
	Total	600(100.0)
What is the teaching method? (Please mark all applicable items)	Instruction	423(70.7)
	Demonstration	127(21.2)
	Free discussion	145(24.2)
	1:1 conversation	74(12.4)
	Etc	60(10.1)
How many hours do you study English a week?		
	Within an hour	102(17.0)
	An hour	65(10.8)
	Two hours	243(40.5)
	Three hours	16(2.7)
	Four hours	105(17.5)
	More than five hours	58(9.7)
	Etc	13(1.7)
	Total	600(100.0)

Frequency analysis

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영어수업은 대부분 일주일에 2시간(40.5%) 정도 진행하고 있었으며, 4시간(17.5%), 1시간 미만(17.0%) 순이었다<Table 2>.

3. 영어학습 방법 및 동기

보건계열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80.8%)

Table 3. Questionnaire on English learning

Unit: N(%)

Division	I don't think so	I can't tell for sure	I think so
1. English learning motivation			
1) I feel the necessity of English learning	31(5.2)	84(14.0)	485(80.8)
2) I need to learn English to get a better job in the future	22(3.7)	77(12.8)	501(83.5)
3) I need to learn English to take care of foreigners after getting a job in the major field	49(8.2)	129(21.5)	421(70.2)
4) I need to learn English to make friends with foreigners and learn foreign culture	28(4.7)	96(16.0)	476(79.3)
5) I need to learn English to communicate freely with foreigners	43(7.2)	144(24.0)	412(68.7)
2. Confidence and interest in English learning			
1) I am not confident in English even though I study hard	112(18.7)	192(32.0)	296(49.3)
2) I am not confident in listening comprehension even though I study hard	135(22.5)	168(28.0)	297(49.5)
3) I am not confident in speaking and writing even though I study hard	86(14.3)	147(24.5)	367(61.2)
4) I feel uncomfortable attending an English class that goes in English only	175(29.2)	174(29.0)	251(41.8)
5)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but I have no interest in english	205(34.2)	168(28.0)	226(37.7)
3. Teaching method of English classes			
1) Instructor centered learning	159(26.5)	200(33.3)	240(40.1)
2) No consideration for the individual difference between students	168(28.0)	233(38.8)	199(33.2)
3) Skipping the basic explanation	220(36.8)	225(37.6)	153(25.6)
4) Lack of learning tools for the comprehension of English	170(28.4)	236(39.4)	193(32.2)
5) Textbook centered learning rather than spoken English	162(27.0)	194(32.3)	244(40.7)
4. Attitude of instructors towards teaching			
1) Instructor's blame for the students mistake	392(65.3)	134(22.3)	74(12.3)
2) No question atmosphere for the instruction	292(48.7)	193(32.2)	115(19.2)
3) Boring and uncomfortable atmosphere	270(45.0)	197(32.8)	133(22.2)
4) Difficulty in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udents	249(41.6)	211(35.2)	139(23.2)
5) Partiality for the best English speaking student	333(55.6)	168(28.0)	98(16.4)
6) Thinking of English for the tool of employment	363(60.5)	161(26.8)	76(12.7)
5. The level of difficulty and interest of textbooks			
1) There are too many words or idioms that I do not understand in the textbook	227(37.8)	227(37.8)	146(24.3)
2)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are boring and uninteresting	154(25.7)	217(36.2)	228(38.1)
3) There is no interesting content such as quiz or game.	157(26.2)	216(36.1)	226(37.7)
4) It is hard to study because of a lot of content.	257(42.8)	237(39.5)	106(17.7)
5) It does not mainly consist of listening and speaking	207(34.5)	271(45.2)	122(20.3)
6. Learning environment factor			
1) There is little english class that I have to take every semester	285(47.7)	227(37.8)	86(14.3)
2) There are lack of facilities and English learning materials.	119(19.9)	261(43.6)	219(36.6)
3) There are no various learning materials.	104(17.3)	256(42.7)	240(40.0)
4) There are too many students in a class.	212(35.3)	246(41.0)	142(23.7)
7. Bad influences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1) Lack of confidence in English	129(21.5)	195(32.5)	276(46.0)
2) Boring teachers or learning method	174(29.0)	205(34.2)	221(36.8)
3) Learning method mainly consisting of grammar or reading	184(30.7)	231(38.6)	184(30.7)
4) Surrounding pressures requiring English ability	98(16.4)	194(32.4)	306(51.2)
5) Academic stress that I have to speak fluent English	105(17.6)	193(32.3)	300(50.2)
6) Bad experiences that I was not unsuccessful in english learning or got low score on English tests	147(24.5)	215(35.8)	238(39.7)
7) No aims of English learning	145(24.2)	227(37.8)	228(38.0)
8) Bad feelings against english speaking countries or cultures	368(61.3)	160(26.7)	72(12.0)
9) Major subjects are more important than English.	135(22.5)	194(32.3)	271(45.2)
10) Burden of expenses on English learning	154(25.7)	239(39.8)	207(34.5)
Total		600(100.0)	

Frequency analysis

Table 4. Comparison on English learning in relation to the department of allied health science college Unit: Mean±SD

Division	Motivation	p-value*	Interest	p-value*	Teaching method	p-value*	Attitude	p-value*	Study material	p-value*
Dental hygiene(n=126)	4.16±0.62	0.073	3.24±0.84	0.007	3.26±0.76	0.016	2.46±1.07a	<0.001	3.10±0.73	0.083
Nursing(n=80)	4.06±0.72		3.16±0.96		2.95±0.90		2.34±0.78a		2.91±0.69	
Physical therapy(n=114)	3.91±0.82		3.58±0.83		3.02±0.81		2.55±0.99a		2.99±0.91	
Dental technology(n=89)	3.96±0.88		3.27±1.05		3.26±0.85		3.07±0.81b		2.89±0.80	
Radiological technology (n=116)	4.10±0.68		3.49±0.97		3.14±1.20		2.42±0.88a		2.82±0.81	
Health administration (n=75)	4.14±0.67		3.31±0.91		2.89±0.73		2.24±0.78a		2.85±0.76	
Total	4.06±0.74		3.36±0.93		3.10±0.90		2.52±0.94		2.94±0.79	

*by one-way ANOVA

^{a,b}The same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post-hoc test at α=0.05

은 느끼고 있었으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대부분은 낮은 편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49.3%). 또한 공부해도 영어 듣기 부분(49.5%), “말하기와 쓰기 (61.2%)에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영어수업의 교수법에 관한 응답으로는 대부분 교육자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40.1%), 각 해당하는 전공분야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보다 교재위주로만 수업한다(40.7%)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교육자의 태도에서는 교육자가 작은 실수에도 질책하여 학습의욕을 좌절시키거나(12.3%), 불안감을 조성하는(19.2%) 등의 교육자의 수업태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에서는 교재의 내용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며(38.1%), 흥미 있는 내용으로 퀴즈나 게임이 없다(37.7%)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반면, 교재 분량이 너무 많아 공부하기 어렵다고(17.7%) 응답한 비율은 낮은편이었다. 학습 환경 요인에서는 학기당 이수해야 할 영어 수업시간이 너무 적다(14.3%)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으나, 다양한 영어 학습 자료와 전문시설이 부족하며(36.6%), 학습 교재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다(40.0%)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동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어를 잘하기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압박감(51.2%),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50.2%), 영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자신감 부족(46.0%), 전공 관련 공부가 영어학습보다 우선순위가기 때문(45.2%)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3>.

4. 보건계열 학과에 따른 영어학습에 관한 비교

각 보건계열 학과에 따라 동기, 흥미, 교수법, 태도, 교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으로 해석한다. 치위생, 간호, 물리치료, 치기공, 방사선, 보건행정(학)과는 흥미(p=0.007), 교수법(p=0.016), 태도(p<0.001)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과는 물리치료(3.58±0.83), 방사선(3.49±0.97),

보건행정(3.31±0.91), 치위생(3.24±0.84) 순으로 높았으며, 영어학습을 위한 교수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과는 치기공(3.26±0.85), 치위생(3.26±0.76), 방사선(3.14±1.20) 순이었다. 영어학습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수자의 태도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과는 치기공(3.07±0.81)으로 단연 그 수치가 높았으며, 물리치료(2.55±0.99), 치위생(2.46±1.07) 순이었다 <Table 4>.

총괄 및 고안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가운데 영어 학습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 관광 서비스 활성화되는 등 의료계 역시 글로벌화 되면서 보건계열 분야에서도 영어 교육이 확대되는 실정이다[5].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 볼 때 일반 대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나[9,11,12], 보건계열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영어 교육의 실태와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보건(학)과의 경우 치위생(학)과(21.1%), 방사선(학)과(19.3%), 물리치료(학)과(19.0%), 치기공(학)과(14.8%), 간호학과(13.3%), 보건행정(학)과(12.5%)순이었으며 남자(33.8%)보다 여자(66.2%)가 더 많았다. 보건계열 학과의 영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96.0%)이 영어 교과목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수업 방식으로 이론방식의 수업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40.5% 정도로 가장 많았다.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국가고시 과목과 임상 실습 위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안할 때 실습을 동반한 전공영어교육을 위한 수업시간 할당이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8].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영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묻는 결과 80.8%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 공부의 목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43.6%)이 취업을 위해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점차 의료계의 글로벌화로 보건 의료기관에서도 채용 시 원활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영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보건계열 학과 이외 일반 학과 대학생들에게 있어 특히 전공일치 취업확률이 낮은 학과 학생일수록 영어를 취업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나[6], 최근에는 글로벌화 된 국제 환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있어 영어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10].

그러나 위와 같이 학생들은 높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낮은 자신감과 흥미를 갖는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영어 학습 동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어를 잘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감을 가장 많이 응답하며(51.2%) 앞서 설명한 영어 학습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강제적으로 느끼며 이 압박감이 흥미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영어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영어 울렁증 및 불안감을 초래하여 영어 공부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져 올 수 있게 된다[13]. 그리고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에 관한 질문에서 교재의 내용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며(38.1%) 흥미 있는 내용이 없다(37.7%)라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도 결과를 또한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학습 환경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교재가 다양하지 못하다’와 ‘다양한 학습 자료와 전문시설이 부족하다’에 각각 40.4%와 36.6%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교재에 관한 불만을 일관되게 나타내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영어 수업을 믿지 못하며, 일반 사설 어학원을 다니며 그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실제 자신감과 흥미를 이끌어 줄 새로운 영어 강의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실용적 목적을 가진 특수목적영어의 교육과정을 모색되어야겠다[8,14].

영어 학습 동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어 공부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뒤 이어 ‘학교 관련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45.2%).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취업을 위해 국가고시라는 시험에 대비하여야 하며 때문에 많은 교과목과 과중한 학습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할수록 즉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학력일수록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가 낮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15].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학과 별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순으로 낮았으며, 영어 학습의 교수법의 만족도는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순으로 낮아졌다. 간호학과는 흥미도와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 모두 비교적 높은 반면 치위생(학)과는 비교적 높은 흥미도를 보였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 학생들의 경우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역량을 전문직 간호사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포함하여 교육 목표에 원활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 영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10], 치위생(학)과의 경우 아직은 미비한 영어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현실이 학과 간 격차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가 사용하는 교구인 교재에 있어 만족도가 간호학과에 비해 치위생(학)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8]과 최[15]는 치위생(학)과의 전공영어교재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에 관하여 이미 지적한 바 있었다. 영어 학습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수자의 태도에 대하여 만족도는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치기공(학)과 순으로 낮아졌으며 치기공(학)과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게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나머지 (학)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교수법에서도 치기공(학)과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영어교육의 만족도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16], 본 연구에 치기공(학)과의 경우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타(학)과 학생들 보다 가장 낮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값으로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치기공(학)과의 취업 환경 특성 상 환자 응대 등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적고 그에 따른 영어 학습에 대한 필요가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 보건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영어 학습에 대하여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학습에 있어 낮은 자신감과 흥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자신감과 흥미를 이끌어 줄 다양하고 새로운 영어 강의 방법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된다. 본 연구는 교수자의 교수법이나 사용된 교재가 학교마다 상이하다는 제안점이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있어 영어 듣기 및 말하고 쓰기에 있어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와 같이 강독위주의 일방적 수업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필요에 맞는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과 요구에 맞춘 원어민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수업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재위주로 수업한다’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DVD, 오디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시청각 수업방식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의료보건계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를 위한 분야별 특수목적영어(ESP: English for Special Purposes)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부터 졸업생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영어 수업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신감과 성취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건계열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하여 사회 환경, 학생, 산업체의 요구와 그 수준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된 것으로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도 및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향후 전국적 범위의 더 많은 연구 대상자 확보를 통해 보건계열 학생들과 일반 대학의 학생들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일부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적 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영어 교과목 수업을 학교에서 수강한 적이 있었으며(96.0%), 영어공부를 하는 목적은 취업(43.6%), 졸업인증(28.9%)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어를 수업하는 방식은 이론수업(70.7%)이 기본이었으며, 토론수업(24.2%)과 실기수업(21.2%) 진행하였다.
2. 보건계열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대부분은 낮은 편으로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공부해도 영어 듣기 부분, 말하기와 쓰기에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교재의 난이도 및 흥미도에서는 “교재의 내용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며”, “흥미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반면, “교재 분량이 너무 많아 공부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학습 환경 요인에서는 학기당 이수해야 할 영어 수업시간이 “너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으나, “다양한 영어 학습 자료와 전 문시설이 부족”하며, “학습 교재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하였다.

3. 각 보건계열 학과에 따라 동기, 흥미, 교수법, 태도를 분석한 결과 치위생, 간호, 물리치료, 치기공, 방사선, 보건행정(학)과는 태도($p < 0.001$), 흥미($p = 0.007$), 교수법($p = 0.016$)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영어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과는 물리치료(3.58 ± 0.83), 방사선(3.49 ± 0.97), 치위생(3.24 ± 0.84) 순으로 높았으며, 영어학습을 위한 교수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과는 치기공(3.26 ± 0.85), 치위생(3.26 ± 0.76), 방사선(3.14 ± 1.20)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보건계열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느끼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는 영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감과 흥미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법과 교재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통해 전공지식의 함양과 영어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3): 217-25.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3.146>.
2. Lee HH, Lee BS. Key el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devices for foreigners in Korea: a delphi study. *J Korean Acad Nurs Admin* 2012; 18(2): 137-45.
3. Park H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English-learning" boom: In the lens of social symbolization. *Sociolinguistic Soc Korea* 2006; 14(2): 169-96.
4. Park HS. Consideration on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the Korean EFL context. *Human Sci Stud* 2010; 24: 107-22.
5. Cheon SH, Choi GY. The recognition on English interests and anxie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Soc Dent Hyg* 2014; 14(5): 631-9. <http://dx.doi.org/10.5807/kjohn.2014.214.05.631>.
6. Lee JH. College students' selection process of English learning: an analysis in perspective of subject mismatch and perceived budget constraints. *Asia J Edu* 2012; 13(2): 25-56.
7. Kim SS. A study on ways for improving a general English program at a univers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eachers and students needs [Doctor dissertation]. Daegu: Univ. of Yeungnam, 2009.
8. Kim JS.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English for major course works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with a focus on three-year dental hygiene departments [Master's thesis].

- Seoul: Univ. of Kyung-hee, 2012.
9. Cho SE, Hwang SS. Consideration of current states of college-level english medium instruction and exploration of future direc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tud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classified as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 *SMOG* 2013; 71: 175-94.
 10. Park JH.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 17(1): 74-87.
 11. Lee KH, Hong JY. Study on the situations and learning effect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at korean universities. *J Loc Educ Man* 2015; 18(1): 1-22.
 12. Lee JH, Park HJ. College students' selection process of english learning: an analysis in perspective of subject mismatch and perceived budget constraints. *Asia J Edu* 2012; 13(2): 25-56.
 13. Park HS. The effects of 12 learners' motivation and anxiety on english speaking skills. *For Lang Edu* 2006; 13(4): 219-41.
 14. Lee JS. Doctors' needs analysis for developing ESP course for medical students. *J English Lang Liter* 2012; 54(1): 273-97.
 15. Choi YR, Lee EJ, Yoo EM, Seo HY, Park JR. Attitude toward english learning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Soc Dent Hyg* 2014; 14(5): 641-8.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5.641>.
 16. Bae SH. (A) study on english languag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attending in emi[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2007.